

임금께 진상하던 '무등산 수박'... 중국도 반한 '춘설차'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② 특산품

무등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는 단연 무등산 수박과 춘설차를 꼽는다. 무등산 자락 마을인 동구 지산동 딸기도 한때 무등산 특산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쳤지만, 재배지역이 감소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눈부신 풍광·청정자연 아래 산신에 제 올리며 지극정성 재배 향산화·신장 개선 효과 탁월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은 진초록색 겉질에 줄무늬가 없고 일반수박에 비해 2~3배나 크다. 단맛과 과육은 개량수박과 달리 감칠맛 나는 원시적 단맛만을 지니고 있다. 한여름 개량 수박철이 끝나고 가을바람이 부는 8월 중순 이후 수확되는 무등산 수박은 향이 깊고 영양가도 풍부한 게 특징이다. 전남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등산 수박에는 향산화기능이 뛰어난 라이코펜과 신장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트룰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무등산 수박이 언제부터 재배됐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는 없으나, 대한제국기 무렵 임금님 진상품이었다고 전해진다. 무등산 수박은 진상품답게 재배에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다. 실이 지나면 무등산 자락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깊이 1m 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을 퇴비로 가득 채운 뒤 씨를 뿌린다. 꽃이 피고 수박이 열리면 가장 굵고 건강한 수박 1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수확한다. 그레야만 최소 8kg에서 최대 30kg이 넘는 특상품을 수확할 수 있다. 무등산 수박을 짓는 농부들은 결실기가 다가오면 예부터 전해내려온 금기도 지켜야 했다. 재배하는 사람이나 가족은 상가 방문이 금지되며, 상종인 사람도 수박밭에 들어가는 안 된다. 특히 가족 중 임산부가 있으면 그해에는 수박재배를 포기한다. 또 수확철이 다가오면 가족 모두가 모여 무등산신에게 제를 올렸다. 이렇듯 온갖 정성이 들어간 무등산 수박은 진귀한 무등산 특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 수박은 까다로운 재배방법 등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그 명맥마저 끊길 위기로 몰리고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생산량이 8000여통에 이르렀지만, 최근 들어 연간 생산량이 3500~4000통에 그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한번 경작한 밭에서는 3년을 휴경해야만 지력이 회복되는 등 재배 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당도가 우수한 개량 수박과의 맛 경쟁력에서도 점점 밀리는 추세다. 개량 수박은 육종개량을 통해 당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무등산 수박은 육종개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배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1976년 이후 광주시 북구청에서는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무등산 수박 명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등산 수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미각에 맞게 당도를 높이고, 크기도 냉장고 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종 개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차의 본고장 중국인도 반한 춘설차

중심사 입구의 왼쪽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삼애다원(三愛茶園)은 면적만 9만9174㎡에 이른다. 원래 중심사의 차밭으로 수백 년을 내려온 곳으로, 대한제국기에는 최상진(당시 광주면장)의 소유로 돼 있다가 1912년 일제 강점기 때 한 일본인이 일부를 인수해 본격적인 기업형 차밭으로 개발, 1937년에는 생산량이 연간 5333kg에 이르렀다고 한다. 예부터 무등산 차는 구례의 지리산, 보성의 대원사 등의 차와 함께 최고의 맛을 인정받았다. 일제가 몰려가고 차밭이 방치되자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이 이를 맡게 된다. 의재는 차 밭에 '삼애다원'이란 이름을 붙이고 직접 '춘설'이라 이름붙인 녹차와 홍차를 생산해 판매했다. 춘설차는 4월 하순 피우에서 5월 초 입하 무렵에 첫 수을 따서 만든 차인데, 일본이나 대만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고품질을 자랑했다. 당시 일본인이 일본상표를 다는 조건으로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으나 의재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현재는 의재의 손자 허달재와 허달문씨 형제가 3대째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전통식품 1호, 광주시 동구 명품으로 선정되는 등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차의 본고장인 중국에도 수출되는 등 무등산 대표 특산물의 자부심을 지켜내고 있다.

허달재씨는 또 무등산 사랑에도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 무등산 공유화 운동 당시 동구 윤림동 산 102번지와 산 151번지, 입야 9917㎡의 무등산 기슭 땅을 기증하기도 했다.

◇지산동 딸기

예부터 딸기 하면 무등산 자락에서 자란 지산동 딸기를 꼽았다. 지산동 딸기는 서울까지 판매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특히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의 벚꽃이 지고 초여름이 되면 인근 여인들이 딸기밭을 찾아 한바탕 화전놀이로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도심이 급속히 개발되면서 지산동 딸기밭 자리에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아파트까지 숲을 이루면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특산품으로 유명한 중심사 인근 삼애다원 녹차밭이 9월 무등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선보이고 있다(위). 아래는 무등산 수박.

무등산 갤러리

“무등산은 여러 가지 색이 있다. 푸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얀색으로 보일 때가 많다. 눈이 내려서 하얀색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상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뒤편에 보이는 하얀 무등산과 함께 그림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렸다. 큰 나무와 대조적으로 소박한 집과 화려한 꽃을 배치했다. 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존재다.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항상 꽃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주하 작 '무등에 꽃피다' (2013년)

캔버스에 오일(53 x 41cm)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동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